

「가을 떡갈나무 숲」 \_ 이준관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빼기 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혼례(婚禮),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쫓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가을을 맞이한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관찰한 떡갈나무 숲은 숲의 생명체에게 안식처이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화자는 자신이 포용력 넘치는 숲의 모습에 동화되는 것을 느끼며, 숲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마저 감싸안아 주는 것 같아 위안을 받는다. 이처럼 떡갈나무 숲은 화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간이다. 특히 이 작품은 ‘눈부신 날개짓 소리’, ‘뿌려 둔 노래’, ‘파릇한 산울림’ 등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1연: 많은 생명체의 안식처가 되는 떡갈나무 숲
- 2, 3연: 가을 떡갈나무 숲의 풍경
- 4연: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나’
- 5연: 배려심과 포용력이 넘치는 떡갈나무 숲
- 6연: 떡갈나무로부터 위로받는 ‘나’

✓ 주제 : 위로와 평안을 주는 가을 떡갈나무 숲

- ① 6연은 화자와 떡갈나무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를 위로하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떡갈나무의 포용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에서 겨울을 대비하여 노루가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는 것은 떡갈나무 숲이 곧 노루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 젓꼭지처럼 까맣다’에서 하나 남은 열매를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두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 이는 떡갈나무 숲에 사는 생명체들이 따뜻한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고 화자가 추측한 것이다.
- ④ 이 작품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떡갈나무 숲은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이 사라지고 ‘텃새만 남아’ 노래를 ‘갈무리한다’는 것은 생명력 넘쳤던 여름날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차분해진 가을 떡갈나무 숲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⑥ ‘나를 들이마’서(대상인 ‘하늘’과 주체인 ‘나’가 전도된 표현) 자신이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것은 화자가 떡갈나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THE - 깊은 독해]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적 공간과, 여기를 걷는 시적 상황이 제시되었다.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떡갈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작품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떡갈나무 숲’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에 해당한다.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뽕기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 떡갈나무가 다른 생명체에게 베푸는 도움 3가지(따뜻한 털, 뽕기집, 알의 집)를 나열하고 있다. 이때 ‘따뜻한 털’, ‘뽕기집’, ‘벌레들의 알의 집’은 안식처의 의미를 가지며, 떡갈나무 잎이 베푸는 은혜에 해당한다. 여기서 떡갈나무 잎의 희생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1연 : 동물들의 안식처가 된 떡갈나무 잎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혼례(婚禮),

→ 여름의 떡갈나무 숲에서 풍뎡이들의 짝짓기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이다. 풍뎡이들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여름의) 떡갈나무 숲은 생명력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 ‘눈부신 날개짓 소리’는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다.

텃새만 남아

→ (가을의) 떡갈나무 숲에는 (풍뎡이들은 사라지고) 텃새만 남은 상황이다. (‘그득했던’이라는 시어를 통해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가을로의 시간의 경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숲의 모습이 나타나며, 가을 떡갈나무 숲의 차분한 모습이 드러난다.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 콩밭의 곡식을 텃새들이 쪼아먹는 상황이다. 이때 ‘콩밭에 뿌려 둔 노래’는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며, ‘노래를 쪼아’라는 표현은 우형의 대상이 구체화된 표현이다.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 (떡갈나무 숲에 풍뎡이는 사라졌지만,) 텃새들이 콩을 쪼아 식량을 비축하는 상황이다.

▶2연 : 떡갈나무 숲의 정경

나는 떡갈나무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 본다.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화자는 노루 발자국을 찾아보는 상황이다. 생명체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다. 또한, 떡갈나무 숲이 ‘노루’가 자유롭게 살아가던 삶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 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 노루가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간 상황이다. 시간의 경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명력이 사라지고, 겨울을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한 떡갈나무 숲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파릇한 산울림’은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사용된 표현이다.

▶3연: 노루가 떠난 떡갈나무 숲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 마신다’는 표현은 주체(‘나’)와 객체(‘하늘’)가 뒤바뀐 주객전도의 표현이다.(주객전도는 의인법을 수반함) ‘나’가 숨을 들이키는 것을 ‘하늘’이 ‘나’를 들이마신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화자가 가을 하늘과 하나가 된 상황이다.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 화자는 ‘하늘’의 ‘별’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화자가 떡갈나무 숲과 일체를 이룬 상황(혹은 이를 소망하는 상황)이다. 화자와 자연의 교감과 일체감 등을 느낄 수 있으며, 합일의 경지, 물아일체의 경지가 나타난다. 이때 ‘별’은 자연에 동화된 화자를 비유한 말이다.

▶4연 : 떡갈나무 숲과 하나가 된 ‘나’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허로 훑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 열매 하나가 남겨진 이유에 대한 추측을 의문문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숲속의 생명체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사람과 배려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끼를 위해 열매 하나를 남겨 놓은 순한 산짐승의 모습을 통해 생명체들의 상생과 배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젓꼭지처럼 까맣다.

→ ‘젓꼭지’의 원관념은 ‘열매’일 것이다. 모성애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5연 : 새끼를 배려하는 떡갈나무 숲의 산짐승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린다.

→ ‘외롭다’, ‘쓸쓸하다’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되었다. 떡갈나무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어준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 ‘떡갈나무’가 슬픔 때문에 부어오른 화자의 발등에 ‘떡갈나무 잎’을 떨어뜨린 상황이다. 화자와 떡갈나무의 교감이 나타난다. 이때 ‘잎을 떨어’구는 떡갈나무의 행위는 위로를 의미한다. 또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슬픔’)되었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부은’)하였다.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어준다.

→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 조금 따뜻해질 거야’는 맥락상 떡갈나무의 말이다. 대화체와 의인법이 사용된 것으로, 떡갈나무가 화자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낮춤말의 사용에서 친근감이 드러난다. 이때 ‘내 마지막 손’은 떡갈나무의 마지막 남은 잎을 비유한 말로, 이를 통해 떡갈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잎을 떨어준다’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연 : 떡갈나무 앞에서 받는 위로

→ 전체적으로 행간 결림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전공자의 시선 [출처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이 시는 이준관의 『가을 떡갈나무 숲』(나남, 1991)에 실린 작품이다. '떡갈나무 숲'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그 속에 있는 여러 소재들을 통해 자연 친화의 정서가 두드러진다. 시의 성격은 감각적이고 사색적이며, 다소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전체는 6연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연부터 5연까지가 독백체로 시상이 전개된다면 6연에서는 대화체를 통해 떡갈나무를 의인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심리적 교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가을의 '떡갈나무 숲'에서 화자가 자연에 대해 느끼는 위안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1연에서는 떡갈나무 숲을 걸으며, 떨어진 잎들이 동물들의 털이 되거나 뺨기집, 벌레의 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연과 3연에서는 풍뎅이, 텃새, 노루 등의 동물들이 가득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 이들이 떠나고 남은 가을 떡갈나무 숲을 묘사한다. 3연에서는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보다가, 자신이 별이 되어 이 떡갈나무 숲을 다 차지해버릴 것 같다는 심경을 고백한다. 5연에서는 떡갈나무 숲에 남은 열매 한 개를 보면서 남은 짐승들을 위한 산의 작은 호의를 생각한다. 6연에서는 외로운 심경을 고백하는 화자와 잎을 떨어뜨려 나에게 반응하는 떡갈나무의 위로를 보여준다. 2연의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노래를 쫓아'나 3연의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 오는'에서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심상을 보여준다. 4연의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은 자연과의 동화를 통한 물아일체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을의 떡갈나무 숲은 지난 여름에 동물들의 삶이 터전이 되었던 흔적들만을 지닌 채, 고요하고 평안하다. 떡갈나무가 주는 넉넉함과 자기 희생적인 보살핌은 화자에게 인간의 외로움마저도 자연 전체의 질서 안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 수능적 독해 Point ]

- 화자 : 화자 '나'가 걸으며 드러남 [떡갈나무 숲에 간 이]
- 상황 : 떡갈나무 숲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며 하나되고 있음
- 정서·태도 : 자연과의 교감, 동화, 일체감, 외로움, 쓸쓸함, 슬픔

[ 연 관 - 기 출 문 제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  
 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B]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C]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D]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  
 어가도록 태어났다 /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  
 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

[E]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  
 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  
 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  
 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쓰 켄'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  
 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나)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썩기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흔레,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쫓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짓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함께 교감하는 장면이 구체화되어 있다.
- ② 장소의 이동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③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④ 비장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전달되고 있다.
- ⑤ 고독에 대한 위로를 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가)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흰 바람벽을 전등이 비추는 장면을 배경으로 고독하고 지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 : 화자는 흰 바람벽에 떠올린 가난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영사막에 비친 영상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③ [C] : 화자는 흰 바람벽에 떠올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지냈던 과거의 장면을 영사 막에 비친 영상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④ [D] : 화자는 자신의 운명과 고독에 대한 내면적 갈등을 흰 바람벽이라는 영사막에 비친 자막처럼 제시하고 있다.
- ⑤ [E] : 화자는 자신이 공감하는 대상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지향을 흰 바람벽이라는 영사막에 비친 자막처럼 제시하고 있다.

3. (나)에서 시구의 의미와 연결하여 **떡갈나무 숲**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썩기집이거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는 따뜻한 안식처로서의 공간인 것 같아.
- ② ‘풍뎅이들’이 ‘흔레’를 올리던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아.
- ③ ‘노루’가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떠나게 되는 방향을 암시하는 공간인 것 같아.
- ④ ‘나’가 ‘가볍게’ ‘별이 될 것’ 같이 자연과의 합일을 느끼는 공간인 것 같아.
- ⑤ ‘어느 산짐승’이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열매 하나’ 남겨 놓았을 것 같은 사랑과 정감 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달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국화 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그렇다!  
 아무리 쪼들리고 / 웅숭그릴지언정  
 - ‘어찌 제왕의 문에 둘을 부러워하라’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머언 거문고 소리……

- 신석정, 「대바람 소리」

(나)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썩기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흔레,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핏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대상과 소통을 시도하며 교감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록 가난한 시인이었지만, 한평생 지조 있는 선비로서의 삶을 살았던 신석정은 이 시를 통해 곳곳이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로 현실적인 곤궁함을 타개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선비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대나무’, ‘국화’와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문고’는 시인의 삶의 지향을 드러내 준다. 그리고 ‘어찌 제왕의 문에 들을 부러워하라(豈羨夫入帝王之門哉)’로 마무리되는, 후한 말의 지조 있는 선비인 중장통이 지었다는 ‘낙지론’은 그를 일깨우는 화두가 된다.

- ① ‘창을 흔들’며 들리던 ‘소소한 대바람 소리’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군.
- ② ‘국화 향기 흔들리는 / 좁은 서실’은 지조 있는 선비로 살아온 화자의 삶이 함축된 공간을 나타내고 있군.
- ③ ‘앉았다, 누웠다 / 잠들다 깨어 보’는 모습은 현실적인 곤궁함으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무료하게 ‘그저 그런 날’을 지내던 화자는 ‘병풍’에 적힌 글귀를 읽고 자신이 지향할 삶에 대해 깨닫고 있군.
- ⑤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머언 거문고 소리……’는 고결하고 곳곳하게 살아갈 화자의 의지를 환기하고 있군.

**6.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떡갈나무 잎이 ‘털’이 되고 ‘집’이 되었다는 것에서 화자는 떡갈나무 숲에 사는 존재들에게 떡갈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날갯짓 소리 들릴 듯 한데’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바라보며 숲의 지난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라는 화자의 고백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를 통해 ‘산짐승’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 화자는 다른 생명체도 떡갈나무처럼 다른 존재를 품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떡갈나무’가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라고 말을 건네는 상상에서 화자는 떡갈나무가 자신을 숲에 사는 존재들과 동일하게 대하여 위로해 준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산업 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 질서의 혼란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생태시는 산업화와 물질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병폐를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노래한다.

초기의 생태시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의 위기를 고발하는 작품이 많았다. 무분별한 산업화가 불러온 폐해, 특히 인간과 자연이 모두 파괴와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을 비판적 관점에서 그려 내는 경향을 띤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서정적인 생태시는 생태계의 조화로운 생명 존귀함을 그려 내고, 이를 통해 시인이 느끼는 긍정적 깨달음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자연은 더 이상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거나 피해를 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스스로 충만한 생명력을 갖춘 순환적인 존재이자, 세상 만물에 한없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는 근원적인 생명의 존재로서 인간이 돌아야 할 대상 혹은 닮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시선 혹은 인식의 전환이 자리를 잡고 있다. 초기의 생태시는 인간을 무지와 탐욕의 존재로 간주한다. 순환하는 생태의 질서에 무지한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무분별하게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인간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생각했다. 초기의 생태시가 서정의 목소리가 약화되고 ㉠ 문명 비판과 풍자의 시로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정적인 생태시는 인간을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며 생태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존재로 그려 내는 경우가 많다. 자연과 직접 교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자연 만물의 일부인 인간 스스로 자연과의 상생(相生)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나)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 시도 때도 없이 푸른 것은 모조리 갹아먹어 버리는 / 전천후 산성비

그렇다 전천후로 /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넘치고 넘치는  
그래서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쓰레기통에서 /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한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그러한 절망이 / 이제는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그 위에 내리는 /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 버린 / 절망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  
대량 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 이형기, 「전천후 산성비」

\* 구근: 둥근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으로 된 줄기나 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리 따듯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췌기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뎡이들의 흔레,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허로 훑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7.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푸른 것은 모조리 잡아먹어 버리는’은 생명을 파괴하는 ‘산성비’의 속성을 그려낸 것으로서, ‘우리 시대’의 삶에 대해 화자가 지니고 있는 비판적 인식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② 2연의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는 산업 사회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과잉 생산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시선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4연의 ‘절망’이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는 산성비로 인한 파괴와 죽음이 일상화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로서, ‘선지자의 예언’에 담긴 절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위기감을 환기하고 있군.
- ④ 6연의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는 산성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인간의 적극적인 대응 양상을 묘사한 것으로서, 생태의 위기에 맞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군.
- ⑤ 마지막 연의 ‘비극이 되기에는 /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는 ‘산성비’의 위험성을 재차 일깨우는 것으로서, 산업화에 대한 만연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둔감해진 도시 문명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하고 있군.

8. (가)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은 ‘떡갈나무 잎’이 ‘숲’의 다른 존재에게 만들어 준 삶의 거처로서, ‘숲’이 생명체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상호 의존의 공간임을 보여 준다.
- ② ‘풍덩이’와 ‘텃새’는 ‘숲’의 계절 변화를 화자에게 일깨워 주는 존재로서, ‘숲’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의 순환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 ③ ‘노루 발자국’은 떡갈나무에 깃들여 있는 다른 생명체의 흔적으로서, ‘숲’의 생명체들과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는 화자의 동경을 떠올리게 한다.
- ④ ‘열매 하나’는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먹이가 되는 존재로서, ‘숲’을 이루는 생명체들이 다른 생명체를 서로 배려하는 상생의 존재들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떠올리게 한다.
- ⑤ ‘마지막 손’은 ‘잎’을 향한 화자의 손길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숲’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 화자가 이제 다른 생명체들에게 내미는 위안의 손길을 가리킨다.

9. (나)의 **전천후 산성비**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②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라는 표현을 볼 때, 살아 있는 존재와 죽어 있는 존재 간의 순환을 만들어 내는 산성비의 역할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③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화자가 선지자의 절망적인 예언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④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라는 표현을 볼 때,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신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 ⑤ ‘오늘도 내린다.’라는 표현을 볼 때,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오는 산성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깨우고 있는 시어이다.

10.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미래 상황을 묘사하여 화자의 바람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다)는 의문형의 진술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시적 대상과의 가상적 대화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

1.

[ 정답 SCAN ] ⑤

⑤ (가)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표현에서 보듯 화자는 자신의 고독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다음, 화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존재들을 떠올리며 위로를 삼는다. (나)의 경우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린다.'라는 표현에서 보듯 화자는 자신이 고독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 다음 화자는 '떡갈나무'가 자신에게 해 주는 말을 상상하며 위로를 삼는다.

[ 오답 SCAN ]

- ① (나)의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에서 화자가 자연과 함께 교감하는 장면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② (나)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걸으며 시를 전개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감정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가)는 장소의 이동과 상관이 없다.
- ③ (가)와(나) 모두 화자가 현실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에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가)와 (나) 둘 다 비장한 어조로 보기는 어렵다.

2.

[ 정답 SCAN ] ③

③ 이 시는 마치 극장의 영사막과도 같은 흰 바람벽에 화자의 여러 가지 추억과 회한의 장면들이 투사되는 과정과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C] 부분은 화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상상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는것은 그녀가 벌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겠구나 하는 화자의 상상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지냈던 과거의 장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이 흰 바람벽에 / 희미한 십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내어던지고'에서 알 수 있으며, '어쩐지 쓸쓸한 것',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등에서 고독하고 지친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② 화자는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추운 날 시린 손으로 무와 배추 등을 씻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현재 고향에 계실 어머니의 모습을 화자가 상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를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흰 바람벽이라는 영사막에 지나가는 자막처럼 자신의 운명과 고독에 대한 내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D]에서 느낀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나아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가도록 했다는 인식으로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 '프랑시즈 썸',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등 화자가 공감하는 대상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지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 정답 SCAN ] ③

③ 3연에서 떡갈나무 숲은, 노루들이 더 깊은 산골짜기를 찾아 떠나기 전에 마음껏 뛰어놀았던 자유로운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루들이 떡갈나무 숲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떠난 것은 아니다. 시적 배경이 가을이므로, 노루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곳으로 간 것이지 방황하는 공간으로 떡갈나무 숲을 암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루'가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떠나게 되는 방향을 암시하는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썰기집', '벌레들의 알의 집'은 바로 앞의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과 마찬가지로 떡갈나무 잎이 주는 혜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떡갈나무 숲은 따뜻한 안식처로서의 공간을 의미한다.
- ②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인 '풍뎅이들'이 '흔레'를 울리는 떡갈나무 숲은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간을 의미한다.
- ④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 나를 들이마신다'와 '나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를 통해 화자가 자연에 깊이 동화되고 합일을 느끼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 어느 산짐승이 허로 훑아 보다가, 뒤에 오는 /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부분을 통해 떡갈나무 숲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정감이 있는 넉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4.

[ 정답 SCAN ] ⑤

⑤ (가)에서는 ‘대바람 소리’, ‘거문고 소리’와 같은 청각적 심상, ‘국화꽃 향기 흔들리는’과 같은 공감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인 ‘서실’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텃새’의 ‘노래’와 같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인 떡갈나무 숲을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SCAN ]

- ① (가)에서는 ‘소설’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나타나지만, 계절의 순환은 확인할 수 없다. (나)에서는 화자가 가을에 떡갈나무 숲을 거닐면서 숲의 여름 풍경을 떠올리고 있지만,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나)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리고, 떡갈나무는 그런 화자를 위로하면서 서로 소통을 시도하며 교감하고 있다. (가)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서는 ‘거문고소리……’를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주고 있으나, (나)에서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에서는 ‘어찌 제왕의 문에 뚫을 부러워하라’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 스스로 병풍에 쓰인 글귀를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것으로,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에서도 남은 열매를 보며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라는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설의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남아 있는 열매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라 할 수 있다.

5.

[ 정답 SCAN ] ③

③ ‘앉았다, 누웠다 / 잠들다 깨어 보’는 모습은 화자가 서실 안에서 보내는 날들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시인은 가난하지만 한평생 지조 있는 삶을 살았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모습이 현실적인 곤궁함으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보기>에서 시인은 한평생 지조 있는 선비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삶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대바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소하게 들어오는 ‘대바람 소리’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국화’는 선비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국화향기 흔들리는 / 좁은 서실’은 지조 있는 선비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삶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병풍’에 적힌 글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담고 있으며 화자를 일깨우는 화두이므로, 무묘한 일상 속에서 화자가 이를 읽고 자신이 지향해야 할 삶을 깨닫는다고 할 수 있다.
- ⑤ ‘대나무’는 선비의 고결함을, ‘거문고’는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머먼 거문고 소리……’는 고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6.

[ 정답 SCAN ] ③

③ 화자가 자신이 별이 될 것 같다는 것은 떡갈나무 숲에 깊숙이 들어온 화자가 자신도 자연 속 존재가 되어 떡갈나무 숲을 차지하고 싶다는 것으로, 자연과 동화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SCAN ]

- ① 떡갈나무 잎이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고,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된다는 것은, 떡갈나무가 떡갈나무 숲에 사는 존재들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화자는 풍뎅이들 대신 텃새만 남아 있는 풍경을 보면서 ‘풍뎅이들의 혼례, /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하다고 한다. 이는 화자가 현재 떡갈나무 숲에서 자신이 오기 전 숲의 풍경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열매 하나를 보면서 어느 산짐승이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화자가 다른 생명체도 떡갈나무처럼 다른 존재를 품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외롭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리는 화자의 발등에 잎이 떨어지고 화자가 이를 떡갈나무가 마지막 손을 떨구며 말을 건네는 것으로 상상한다는 점에서, 떡갈나무가 화자를 숲에 사는 다른 존재들과 동일하게 대하며 위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

[ 정답 SCAN ] ④

④ 6연의 ‘우산’은 산성비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화자는 6연 2~3행에서 ‘절망’조차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 버렸다는 진술을 통해, 산성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오답 SCAN ]

- ① ‘푸른 것은 모조리 값아먹’는다는 것은 환경 오염으로 형성된 산성비가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는 현상을 비유한 것으로, 여기에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라는 것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생명의 순환 질서가 무너지는 산업 사회의 양상을 지적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부정적 현실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냉소적 시선이 담겨 있다.
- ③ ‘절망’이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다는 표현은 산성비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절망감을 표현한 ‘선지자의 예언’이 확산되는 현실에 대해 화자가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산성비가 ‘너무나 흔해 빠진’ 것이라는 표현은 앞의 연에서 묘사한 산업화로 인한 폐해를 다시 부각하는 것으로, 산업화의 위협에 둔감해져 있는 문명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8.

[ 정답 SCAN ] ⑤

⑤ ‘마지막 손’은 떡갈나무가 잎을 떨구며 화자에게 한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다른 생명체들에게 내미는 위안의 손길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SCAN ]

- ① ‘떡갈나무 잎’이 벌레 알의 ‘집’이 된다는 것은 다른 존재들에게 삶의 거처를 만들어 주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체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숲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② ‘풍뎅이’들이 그득했던 시간이 지나고 ‘텃새’만 남았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숲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의 순환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숲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노루 발자국’은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흔적이고, 화자가 이를 찾아본다는 것은 숲의 생명체와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열매 하나’는 한 산짐승이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생명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임을 보여 주고 있다.

9.

[ 정답 SCAN ] ⑤

⑤ ‘오늘도 내린다.’는 것은 산성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산성비의 부정적 기능이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로 ‘전천후 산성비’라는 시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SCAN ]

- ① ‘계절과 무관하다.’는 것은 계절에 상관없이 내리는 산성비의 위협을 강조한 것으로, 화자의 경이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죽은 구근’은 생명성을 상실한 존재이며, 과잉 생산을 재촉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존재와 죽어 있는 존재 간의 순환을 만드는 것과는 무관하다.
- ③ 화자가 산성비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화자는 선지자의 예언(절망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언(절망감)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외감, 혹은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나)에서 ‘선지자의 예언’은 본래 산성비 자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소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이 쓰레기통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현실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비틀어서 인용함으로써 현실 풍자의 의도로 활용한다. 화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즉 산성비로 인해 절망이 마치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의 현실에 대해 또 다른 절망감과 두려움을 피력한다. 이는 산성비라는 환경 재앙을 초래하는 산업화 시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죽은 자의 욕망’ 위에 산성비가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 현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신념 체계가 형성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10.

[ 정답 SCAN ] ②

② (다)에서는 ‘남겨 놓았을까?’에서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숲속의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상호 의존적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SCAN ]

- ① (나)에서 미래 상황에 대한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 ③ (나)에서는 ‘푸른’, (다)에서는 ‘파릇한’, ‘까맣다’ 등과 같은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그래서’, ‘산성비’ 등과 같은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나)와 (다) 모두 가상적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